



완주마을이야기 since 2002

제158호

2025년 10월호

가을 빛 10월, 완주에서 놀자!

완주를 물들이는 예술의 가을이 깊어간다. 책과 공연, 미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완주의 10월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따뜻한 로컬 감성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다. 예술과 사람, 자연이 한데 만나는 완주의 가을, 그 풍요롭고 따스한 순간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관련 기사 2~7면

사진설명: 보부상 with 완주농부마켓 지남해 행사모습.      사진: 완주군 갤러리

-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 ... 8P
- **삶의 풍경 고산 이인수 이야기** ... 10P
- **화보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 12P
- **고산 이영희 작가 풀간** ... 16P



책과 예술, 먹고 마실거리와 음악의  
**10월엔  
 풍당, 완주!**

완주의 10월은 그야말로 축제의 계절이다. 완주 곳곳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가을 정취를 한껏 더한다. 책과 예술, 먹을거리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완주만의 특색 있는 축제들이 주말마다 펼쳐진다. 또한 11월에는 영화와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들도 이어질 예정이다. 완주 가을 축제 일정과 주요 프로그램을 한눈에 살펴보자.

1

### 공예품, 먹거리 한가득

#### 보부상 with 완주농부마켓

10.18.(토)~19(일)\_삼례문화예술촌

10월 18~19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열리는 '보부상 with 완주농부마켓'은 지역 농부와 공예작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플리마켓형 축제다. 완주에서 생산된 농특산물과 수공예품, 먹거리가 한자리에 모여 가족 단위 나들이객에게 인기가 높다.

3

### 달빛 아래 자동차극장

#### 드라이브인 페스타

10.17.(금)~19.(일)\_봉동읍 둔산공원 일원

10월 17~19일 봉동 둔산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드라이브인 페스타'는 자동차를 테마로 한 체험형 축제로, 공연장 앞 쉼터와 잔디밭 위 피크닉 라운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자동차 에어바운스와 키즈캠프존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도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하다. 근로자, 지역 주민, 청년, 외국인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열린 축제로 단순 관람을 넘어 참여와 체험 중심의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2

### 책 속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 제12회 완주 북적북적 페스티벌

10.18.(토)\_완주군립중앙도서관 일원

10월 18일 중앙도서관에서 열리는 '완주 북적북적 페스티벌'은 '다정한 책, 북적이는 이야기들'을 주제로 열린다. 독서와 문화 예술이 결합된 완주의 대표 독서문화 축제로, 다양한 북토크와 작가와의 만남, 가족 단위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역 도서관과 독서 동아리, 주민들이 함께 꾸미는 플리마켓 등도 열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6

2025 예술로 평화를 말하다

Visual Voices

10.25.(토)~11.7.(금)\_ 완주 예술공간 2동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완주 예술공간 2동에서 '2025 예술로 평화를 말하다: Visual Voices' 전시가 열린다. 포스터, 사진, 그림, 글 등 다양한 형식으로 평화를 표현하는 이 전시는 예술가 작품 전시와 함께 '평화 포스터 그리기', '평화의 집 꾸미기'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시 기간 중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 난민 살레 엘란티시가 참가하는 공감 토크도 마련되며, 수익금은 분쟁 피해자와 난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7

미리보는 11월 축제

가족축제와 GO씨네 별밤극장

완주의 축제는 10월을 지나 11월까지 이어진다. 11월 1일 '제4회 완주군가족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놀이, 공연이 어우러진 가족형 축제다. 11월 7일 완주미디어센터에서는 'GO씨네 별밤극장'을 통해 옥상 야외상영회를 열어 가을밤 별빛 아래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다.

5

치맥과 문화가짠~ 맞닿는 밤

2025 치맥하:삼례

10.24.(금)~25.(토)\_ 삼례문화예술촌 일원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에서 열리는 '치맥하:삼례'는 '치킨과 맥주'라는 키워드에 공연과 예술을 더한 도심형 야간축제다. 삼례의 야경을 배경으로 버스킹 무대, 야외 퍼포먼스, 맥주존 등이 운영되며, 청년 예술가와 지역 상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로컬 문화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4

가을 체험형 미식이 있는 날

한입의완주

10.19.(일)/ 10.31.(금)/ 11.15.(토)\_ 완주 곳곳

완주의 로컬 식재료를 주제로 한 '한 입의 완주'는 10월 19일, 10월 31일, 11월 15일 세 차례 열린다. 완주 곳곳에서 열리는 미식 체험형 행사로, 셰프와 로컬농부가 함께 꾸미는 팝업 다이닝과 푸드토크가 진행된다. 완주의 계절 먹을거리를 가장 감각적으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제12회 완주 북적북적 페스티벌

## 하루종일 야외도서관서 책과 함께 여유를

완주의 가을이 책으로 물든다. 10월 18일, 완주군립중앙도서관과 어울림 잔디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완주 북적북적 페스티벌'이 올해로 12번째 생일을 맞는다.

격년제로 열리는 이 축제는 도서관과 문화단체, 지역서점이 함께 만드는 지식·문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건강한 독서생태계를 조성하고, 실내에 머물던 도서관을 자연 속으로 확장해 '야외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 주제는 '다정한 책, 북적이는 이야기들'. '2025 완주군 올해의 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27개 팀과 1,000여 명의 주민, 독서모임, 교육기관이 함께하는 대규모 독서축제가 될 전망이다.

#### >> 낭독과 음악으로 여는 특별한 하루

축제는 올해의 책 「언제나 다정 죽집」을 주제로 한 낭독공연으로 시작한다. 식전 공연으로 분위기를 연 뒤, '취학 전 천 권 읽기' 달성자 15명, 어린이 사생대회 및 한글 손편지 공모전 수상자, '책 읽는 가족' 등 총 20명에게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이어진다.

이후 밴드 '신나는섬'이 무대에 올라 잔디광장을 음악으로 물들이고, 오후에는 작가 김민섭의 초청 강연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가 열린다. 독서와 삶을 잇는 진솔한 이야기가 관객과 만나며, 책과 사람을 잇는 축제의 의미를 한층 깊게 한다.

#### >> 전시와 체험으로 가득한 도서관


중앙도서관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전시가 펼쳐진다.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편지」 수상작 6점, 청소년 부문 올해의 책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필사노트, 어린이 사생대회 수상작 등이 관람객을 맞는다.

체험부스는 공공·작은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20팀이 참여해 올해의 책 부스,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 >> 야외도서관에서 즐기는 가을의 여유

잔디광장에는 500~1,000권의 책과 빈백, 파라솔, 돗자리가 마련된 야외도서관이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가을 햇살 아래에서 한 페이지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주민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동네책방의 도서 및 문구 판매 부스도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행사 중에는 퀴즈 이벤트 '유퀴즈 온더 북(book)'이 진행돼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기념품도 증정한다.

음식부스에서는 김밥, 샌드위치, 빵, 과일 등 지역공동체가 준비한 간단한 음식을 판매해 책과 함께 소소한 미식을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 머무는 지역 문화의 장, 완주 북적북적 페스티벌에서 올가을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자. 

#### 완주군 올해의 책 낭독공연

시 간 | 10:50~11:00  
장 소 | 중앙도서관 구름다리(주무대)  
공 연 | 완주군 올해의 책(어린이 부문)  
「언제나 다정 죽집」 낭독공연



#### 김민섭 작가와의 만남

시 간 | 13:30~15:00  
장 소 | 중앙도서관 구름다리(주무대)  
내 용 |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  
강연자 | 김민섭 작가  
\*독립서점 '당신의 강릉' 대표  
\*유퀴즈 온더 북 153회 <김민섭찾기 프로젝트>



#### 공연 '어쩌다 카니발'

시 간 | 13:00~13:30  
장 소 | 중앙도서관 구름다리(주무대)  
공연팀 | 밴드 신나는섬



#### 숨사탕 공연

시 간 | 15:00~15:30  
장 소 | 중앙도서관 구름다리(주무대)  
공연팀 | 조이플러스





2024년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에서 열린 '치맥하삼:레' 축제 현장.

사진\_완주문화재단

## 2025 치맥하:삼레

## 전세대 돌리기에 충분한 미식관광 축제

2025 치맥하:삼레는 단순한 음식축제를 넘어 완주 로컬푸드를 활용한 미식 콘텐츠 개발과 야간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 체류형 축제다.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를 돕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성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축제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미식 체험으로 가득 차며 낮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를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밤에는 MZ세대와 성인 관람객을 위한 라이브 콘서트와 EDM 파티가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주민 시선에서 발굴한 장소와 자원을 활용해 기획된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관람이 아닌 참여와 체험 중심의 경험을 제공하며 방문객들은 삼례의 매력을 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신상 먹거리 '흑곶감 막걸리'가 처음 공개된다. 우석대학교와 완주문화재단이 공동 개발한 이 막걸리는 달콤쌉쌀한 맛이 특징으로 완주로컬푸드 체험과 함께 즐길 수 있어 축제 미식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축제장 곳곳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과 간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넘어 만들고, 맛보고, 경험하는 미식 관광을 즐길 수 있다.

## ① 참여형 이벤트와 가족 프로그램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최적화됐다. 단순 관람이 아닌 참여와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가족 공연 및 패밀리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마술쇼, 버블쇼, 풍선쇼 등을 준비했다.

## ② 삼레 밤을 물들이는 라이브 공연과 파티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라이브 공연과 EDM 파티는 삼례의 밤을 다채로운 음악과 에너지로 채운다. 힙합, 라이브 콘서트, 댄스 공연까지 다양한 장르가 이어지며 방문객들은 낮과는 또 다른 삼례의 야경과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공연	시간	10/24	10/25
힙합 공연	19:00~20:00	지울딱	마미손
라이브 콘서트	20:00~21:00	닐로	KCM
댄스 공연	21:00~22:00	클레오	DJ KARA 카라
EDM PARTY	19:00~22:00	DJ EDM 양반장	DJ EDM 양반장

## ③ 지역과 함께 만드는 미식관광

치맥과 완주로컬푸드를 활용한 미식 체험으로 축제 방문객에게 먹고, 만들고, 즐기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로컬푸드 기반 체험 및 판매관 운영, 신상 먹거리 '흑곶감 막걸리' 체험 등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프로그램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도시락+영상+공연에 담아낸 미식 프로그램

### 2025 완주 9품 담은 예술 도시락 '한 입의 완주'

완주의 자연과 사람, 시간을 담은 연형 미식 프로그램 '한 입의 완주'가 가을 완주 축제와 함께 찾아온다. 단순한 식사가 아닌 완주 로컬푸드를 경험하고 농부와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느끼며 자연과 시간을 음미하는 미식 여행이다. 도시락, 영상, 공연이 결합된 이번 프로그램은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의 과정을 관람객에게 보여주며 완주를 온전히 맛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둔산에서 열리는 자동차 테마 축제 '드라이브 인 페스타'와 삼례로, 소양 별빛주막에서 펼쳐지는 일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MZ세대까지 다양한 관람객을 만족시킨다.

### 프로그램 구성

#### ① 3단 도시락

완주의 9품을 기반으로 새롭게 해석한 3단 도시락.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낸 완주의 밥상,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이야기(Farm to Table)를 담아낸다.

#### ② 다큐멘터리 영상

자연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담은 영상. 농부들의 삶과 지역의 정서를 연결해 '자연이 주는 선물'을 보여준다.

#### ③ 음악 공연

자연과 생활이 이어지는 여정을 음악과 공연으로 표현. 발과 햇빛, 날씨,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 '환경과 삶'을 담아낸다.

### 프로그램 일정

#### 1차. 둔산 | 드라이브 인 페스타

- \*일시 : 10월 19일(토) 11:00~13:00
- \*장소 : 드라이브 인 페스타 공연장 앞 쉼터 및 피크닉 라운지
- \*특징 : 자동차 테마의 축제 속에서 즐기는 미식 경험. 에어바운스, 키즈캠프존 등 가족 단위 관람객 참여형 체험 가능.

#### 2차. 삼례 | 삼례문화예술촌 카페 삼례로

- \*일시 : 10월 31일(목) 18:00~19:30
- \*장소 : 농협창고를 리노베이션한 예술 공간
- \*특징 : 예술적 공간에서 만나는 완주 로컬푸드와 공연의 조화. 도심 속 미식과 문화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 3차. 소양 | 별빛주막

- \*일시 : 11월 15일(금) 13:00~15:00
- \*장소 : 소양고택
- \*특징 : 고즈넉한 가을밤, 별빛주막에서 펼쳐지는 완주 로컬푸드와 음악 공연. 여유로운 체험과 미식 경험 제공.



신청QR



### 보부상 with 완주농부마켓

## 공예품·먹거리 가득 로컬감성 주말장터

다가오는 주말 삼례문화예술촌이 공예품과 음식이 가득한 플리마켓으로 활기찬 장터가 된다.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2025 보부상 with 완주농부마켓'이 한바탕 펼쳐진다.

지난해 1만 5,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려 성황을 이룬 이 행사는 지역 농산물과 전국 각지의 수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플리마켓이다. 올해 역시 다채로운 완주 농산물과 소품, 밀키트, 생활용품 등이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완주 지역 농가 20여 곳이 참여해 방문객들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지역 특산물 경험을 선사한다.

행사 기간 중에는 다양한 할인 이벤트, 지역 청년들의 공연과 체험 등 즐길 거리가 함께 마련되어 더욱 풍성한 문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예품과 음식 쇼핑뿐만 아니라 완주만의 로컬 감성을 느껴보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 제3회 GO씨네 별밤극장

## 새벽까지 영화보자, 옥상에서!



11월 7일 완주미디어센터 옥상이 특별한 야외 영화관으로 변신한다. '제3회 GO씨네 별밤극장'은 늦은 오후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영화 상영과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 관객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문화 행사다. 이번 별밤극장은 완주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하는 영화 감상동아리 'GO씨네'가 직접 기획과 운영을 맡아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 참여형 영화 축제로서의 색채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행사는 영화 상영과 함께 공연, 퀴즈, 토크가 어우러지는 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영작은 총 7편으로, 계절과 감성을 담은 장단편 영화들이 마련된다. '봄밤', '첫여름', '로타리의 한철', '여름정원', '블랙박스', '갈비', '월드 프리미어'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관객은 영화 속 이야기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각 영화 사이사이에는 영화 주제와 관련된 퀴즈쇼, 영화 토크가 진행돼 관객이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영화 속 이야기에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늦은 밤 진행되는 새벽 라면타임과 별빛 아래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피콜상점 물골 포토타임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 외에도 운영진이 준비한 간단한 요깃거리를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은 개인 식기와 음료를 지참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GO씨네 별밤극장'은 옥상이라는 특별한 공간과 주민 참여형 기획을 결합해 기존 영화 상영과는 다른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 제4회 완주군가족축제 '우리 家 즐거운 날'

## 온 가족이 즐기는 가족놀이터

11월 1일 완주군청 앞 어울림광장이 온 가족이 함께 뛰노는 가을 놀이터로 변신한다.


완주군가족센터가 주관하는 '제4회 완주군가족축제'는 관내 600여 가족이 한데 모여 가족의 유대와 소통을 다지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공연, 체험, 먹거리 등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코너로 꾸며진다. 유쾌한 '똥돼지 왕방귀' 캐릭터 공연과 화려한 캄보디아 전통춤, 비눗방울·양상불 공연에서 환경 놀이, 미래과학, 레트로 체험과 포토부스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어울림광장 곳곳에 마련된 푸드 부스와 무료 장터, 천원의 행복 존에서는 떡볶이·어묵·크로플 등 다채로운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행사 참여자는 사전 및 현장 신청을 통해 모집하며, 사전 신청 가족에게는 캠핑 테이블·의자 등 현장 혜택도 주어진다. 현장에는 '스탬프 미션' 등 특별 이벤트와 기념품 증정 등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고, 웃고, 소통하는 이번 축제는 완



사진\_완주군가족센터

주만의 가족친화문화를 널리 알리고, 가을의 정취 속에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남겨줄 전망이다. 

##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


# 군민들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완주군민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좋은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이서면 반교로에 있는 센터는 건강증진실, 심폐소생술 체험관, 영양조리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오전 10시, 센터 건강증진사업실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졌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점핑·스텝박스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이 작은 트램펄린 위에서 힘차게 뛰고 있었다. 손잡이를 잡고 강사의 리드에 맞춰 팔과 다리를 활기차게 움직이는 참여자들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함께 밝은 미소가 번졌다. 한 참여자는 “맞춤식단과 병행하며 석 달 만의 5kg 이상의 체중을 감량하고 내 몸이 바뀌는 기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센터 개소 이후 완주군민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혈압·혈당 안정과 체중 감소 등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만족했고, 학부모들은 방학 특화 프로그램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센터 덕분에 건강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주민들의 말에 센터 직원은 큰 보람을 느낀다.

이 외에도 센터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근골격계 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 영양교육, 심폐소생술 체험, VR운동 등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특히 ‘건강생활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과 지역사회 협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우수연 팀장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민의 의견을 듣고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며 “지역 내 병원, 보건소, 복지센터, 학교 등과 협력해 더 든든한 건강지원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

-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완주군민 무료이용)
- 이용방법 사전예약제 및 일부교육 자유롭게 참여 가능
- 위치 이서면 반교로 40-6
- 문의 063-290-3126, 3134

## >>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 건강증진 사업실

- 연령별 맞춤 건강체조, 근력향상, 관절건강 운동프로그램 운영
- 여성 대상 프로그램 ‘점핑·스텝박스 다이어트’
- 초등학생 대상 방학 특화 프로그램 ‘키 쑥쑥! 건강 즐넘기’, ‘비만OUT 키즈점핑’

### 통합관리실

- 건강체크존에서 신장, 체성분, 혈압, 혈당, 스트레스 지수 등 다양한 신체 기초 항목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상담 제공

### 심폐소생술 체험관

- 응급상황 대처 교육(이론 및 실습) 진행- 방학기간 가족 단위 심폐소생술 체험 운영- 관내 어린이집 유아 대상 심폐소생술 체험교실 상시운영
- 전북 최초 가상현실(VR) 운동 프로그램 도입

### 영양조리실

- 홀몸어르신 및 어린이 대상 영양교육 및 조리 실습

### 보건교육실

- 올바른 건강상식 교육 및 주민강좌,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

### 지역사회 연계실

- 통합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지도자들과의 정기회의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지속적 협력 기반 마련



##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점핑 다이어트”

### » 유수연 팀장 1문 1답

**Q\_ 센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또는 지원 내용**  
 센터는 ‘모두가 건강하게,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동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는 영양교육을 병행해 식단·운동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가정에서도 스스로 관리하며 피드백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이 직접 건강 동아리를 운영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내 건강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Q. 센터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완주군은 면적이 넓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있는 지역 특성상 연령과 생활환경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 양상과 건강 수준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방학에는 어린이 대상 건강프로그램을, 노년층에는 복지센터와 연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참여자의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  
 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점핑 다이어트입니다.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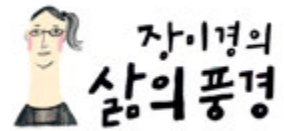
왼쪽부터 임인하 주무관, 유수연 팀장, 조은혜 주무관

참여자는 영양교육과 식단 관리를 병행해 5kg을 감량하며 허리 통증이 크게 완화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30대 회원은 센터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완주군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홍보에 동참하는 등 자발적인 활동으로 센터 운영에 힘을 보태주시기도 했습니다.

**Q. 센터의 향후 계획**  
 2025년에는 점핑 다이어트와 스텝박스 운동 등 비만관리·예방 프로그램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2026년에는 주민 의견과 건강지도자 회의를 통해 이서면의 주요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맞춰 프로그램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존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협의를 통해 새로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센터 덕분에  
 가까워진 건강,  
 변화된 일상”



## 고산면 어우리 이인수 이야기

# 서북 머스매가 토끼어매, 염생이 할매가 되기까지

이인수 할머니는 1941년 충남 예산군 광시면 동산리에서 태어났다.

그 시절의 여자들은 결혼과 동시에 이름을 잃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매'로 불렸다.

유년 시절에는 비교적 풍족한 삶을 누렸지만, 원치 않은 결혼 이후 험한 노동의 세월이 시작되었다. 이인수 할머니가 30~40대에 걸쳐 얻게 된 별칭들은 조금 특별하다.

'서북머스매, 꽃집각시, 소어매, 돼지어매, 토끼어매.' 그 이름들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여성이 자신의 노동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삶의 지층이었다.

혹독한 시집살이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속에서도, 그는 마당 가득 꽃씨를 뿌려 고운 꽃을 피워내던 꽃집각시였고 손이 닿는 대로 가축을 돌보며 밥을 먹이는 소어매, 돼지어매, 토끼어매였다. 그 수를 불러 가축을 팔아 돈을 벌면 무조건 땅을 샀다.

몸은 힘들었지만, 일할 때만큼은 시댁 식구들의 눈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벌 수 있었기에, 그 시절은 힘들면서도 묘하게 신이 났다.

“서북머스매는 남자들이 하는 험한 일 한다고 붙은 별명이야. 내가 살던 곳을 서북이라 불렀거든. 서북 산다고 서북머스매라고 불렀지. 내가 어려서부터 근력이 좋았어. 어디 일하러 가도 나는 남자 일을 하니깐 품삯을 두 배로 줬. 내가 일을 잘하니깐 동네 사람들이 “서북머스매야, 우리 집 일 좀 해줘라” 나만 찾았지. 보통 여자들은 아이 이름 따서 누구 어매 그렇게 부르는데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안 불렀어. 내가 이 집으로 시집 와서 손만 대면 다 잘 됐어요. 농사도 잘되고 가축들도 먹이면 자꾸 불어나고, 동네 사람들이 저 집에 머느리 잘 들어왔다고 새색시 복이 있다고 그랬지. 그런데 나는 시집살이로 고생했어.”

### 좋아하던 노래를 숨겨야 했던 시절

전주 이씨, 세종대왕 18대손이라는 사실은 이인수 할머니의 어린 시절에는 자랑이기보다 짐에 가까웠다. 어른들이 말하는 '이름값'은 늘 무겁게 어깨를 눌렀고, 그 속에서 할머니는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야 했다.

“양반이네 왕손이네 찾아가며 어렸을 때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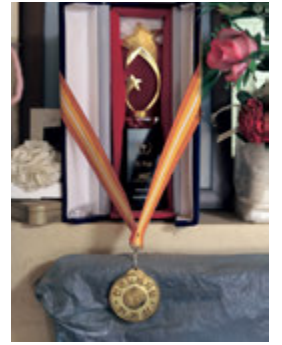
억압받으며 자랐지. 우리 어머니 엄하기가 인왕산호랭이보다 더 무서워. 내 고향 큰 동네에서 전주 이씨 중에서 우리 집이 최고 촌수가 높아. 명절 때 되면 머리 하얀 할아버지들이 도포자락에 갓 갖추고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훨씬 젊은 데도 절을 하는 거야. 찌간했을 때는 왜 할아버지들이 젊은 사람한테 절을 하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어려서부터 누가 노래하면 가만히 듣다가 벌써 머릿속에 가사가 들어가 있어. 잔칫집에서 들은 노래를 기억했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두들겨 가며 노래를 불러. 그럼 우리 어머니가 방망이 들고 쫓아다니면서 기생될라냐고 난리 치고 그랬어. 나는 어머니가 무서워서 죽는 시늉까지 다 했어.”

고향 마을 눈 닿는 곳마다 집안의 땅이었다. 그러나 큰오빠의 노름빚을 갚느라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 무렵, 열두 살이던 이인수 할머니는 부모님과 떨어져 홀로 서울로 향하게 된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친어머니의 지인은 “형님, 막내딸은 머리도 좋고 총명하게 생겼으니 제가 끝까지 가르치고 시집보내겠습니다. 수양딸로 삼게 해주세요.”라며 간곡히 부탁했다. 그렇게 서울에서 건설업으로 크게 성공한 양부모 밑에서 곱게 자랐지만, 열일곱 살 무렵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고무신을 신고 다니던 아이들 사이에서 양갈래로 머리를 곱게 빗고 고급스러운 옷과 구두를 신은 아이는 어찌면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학교 친구들의 끊임없는 괴롭힘 속에서 더는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 후 약사로 일하던 언니를 도와 약국에서 일을 시작했다. 스무 살 무렵, 사진 속의 이인수 할머니 얼굴은 배우 엄앵란을 닮아 있다. 기품 있는 외모 덕에 내로라하는 기업가의 자녀들이 구애를 해왔지만,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덜컹 겁이 났다”고 회상했다.

“똑똑히 배웠으면 시집간다고 했을 텐데 내가 공부할 하다 말았잖아. 모른다고 구박할까 봐 두려웠지. 서로 나 달라고 머슴마들이 쫓아다니는데 정그러 죽을 뻔했어. 그래서 고향집으로 도망 온 거야. 친정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스무 살에 이웃 마을 남자와 결혼했지.”

하지만 남편의 폭력은 거셌고, 그로 인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다. 남편이 하도 험하게 굴자, 동네 사람들은 “서북머슴매, 그 힘 댔다 뭐 할래? 그 신랑 번쩍 들어서 내던져 버려!” 하며 할머니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다. 보다 못한 사촌 동서가 “그렇게 살다 간 정말 죽겠다” 싶었는지 전북 부안에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다. 그



2022년 KBS 전국노래자랑 제1999회 완주군편에 나가 민요 풍년가를 구성지게 부르고 있는 이인수 할머니. 할머니는 평생 길러 온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흉내 내 ‘인기상’을 받았다. 이때부터 ‘엄생이 할매’로 불리게 되었다.

일을 계기로 할머니는 마침내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양지뜸 강패에서 엄생이 할매가 되기까지

“그 뒤로 봉동 추동마을로 이사를 온 거야. 3~4년 살다가 쉰 살 무렵 양야리 산꼭대기로 이사가 150평 사서 오막살이 집 짓고 양계장을 했지. 그런데 여자 혼자 산다고 남자들이 깔봐. 싸우는 기술만 늘었지. 멧살 질 때 손을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잡고 비틀어서 쥐어. 확 멧거보면 감이 와. 들릴 것 같으면 쥘 채로 치대버리고. 못 든다 싶으면 발로 아랫도리를 죽지 않을 만큼만 탁 차 버려요. 혼자 살다 보니 율패가 된 거지. 암전한 채로 살면 나를 못 지켜. 여기 살다 보니 또 별명이 생겼어. 양지뜸(양야리의 옛지명)강패라고!”

양야리 살던 시절 할머니의 목소리를 알아본 이장님의 추천으로 민요의 날 노래자랑에 나가 민요를 불러 TV를 상품으로 받았다. 이후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을 오가며 노래할 무대가 많아지자, 할머니는 더는 주저하지 않고 ‘천안 삼거리’부터 ‘풍년가’, ‘뱃노래’, ‘아리랑’까지, 온갖 민요를 구성지게 뽑아냈다. 친딸처럼 따르던 장애인복지관 직원의 권유로 2022년 전국노래자랑에 나갔고 할머니는 평생 길러 온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흉내 내 ‘인기상’을 받았다. 이때부터 ‘엄생이 할매’로 불리게 되었다.

“나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속상한 일도 없고 밤낮 기분만 좋아. 나 괴롭힌 사람, 내 돈 떼먹은 사람 생각하면 원통해서 못 사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일이다, 텔레비전 보면서 웃고 옛날 노래 하면 같이 따라 부르고. 신나기만 하지”

서북머슴매, 꽃집각시, 소어매, 돼지어매, 토끼어매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양지뜸 강패가 되었고 지금은 엄생이 할매가 되었다. 이인수 할머니는 노래를 잊고 살다가 뒤늦게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 때갈때갈하면서도 구슬프고 익살스러운 목소리로 주저 없이 노래한다.



봄, 여름에는 꽃으로 가득했을 마당. 가을인데도 여전히 할머니가 아끼는 꽃들이 피어있다.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올해도  
완주의 음식과 재미  
잘 즐겼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13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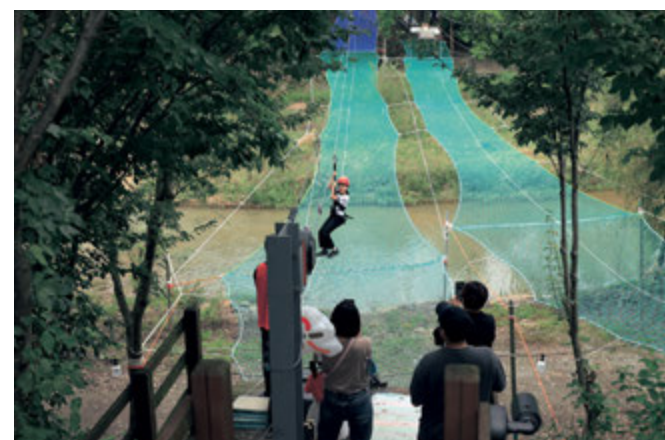
고산자연휴양림의 푸르른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진 제13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사흘간의 열기 속에 막을 내렸다.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는 수많은 방문객이 몰리며, 완주를 넘어 전북을 대표하는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맨손으로 펼떡이는 물고기를 잡으며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 메뚜기를 쫓으며 동심으로 돌아간 어른들, 13개 읍면 마을 셰프가 정성껏 차린 로컬밥상 앞에서 완주의 맛에 감탄하는 방문객들의 모습이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졌다. 화덕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산 한우와 직접 잡은 물고기를 굽는 냄새가 가을바람을 타고 흐르고, 대장간에서는 쇠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해 질 무렵, 축제장은 또 다른 열기로 가득 찼다. 김희재, 배아현, 하하&스킬의 신나는 무대에 맞춰 온 가족이 어깨를 들썩이고, 완주 특산물이 가득 담긴 장바구니를 든 방문객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마스크트 '펼떡이' 굿즈를 손에 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을 하늘 높이 울려 퍼지며, 완주가 선사한 특별한 추억이 방문객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 완주 여기로 모이자!



바스락 가을의 소리가 들려오는 10월. 건강에 유의하며 완주군 곳곳에 다양한 소식과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해 보자. 상시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심한 완주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여기로 모여라!



##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 나만의 향기 만들기

다양한 향료를 조합하여 나만의 취향과 분위기를 표현하는 향기로운 시간!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10월 18일 (토) 오후 2시

모집인원: 15명

참가비: 10,000원

### 수요 영화데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방앗간으로 모여라! 10월 상영작은 '판의 미로', '윈다'이다. 영화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10월 22일, 29일 (매주 수) 오후 2시

### 저속노화 밥상

깊어지는 계절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저속 노화밥상으로 건강한 한 끼를 채운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10월 23일, 30일 (매주 목) 오후 6시

모집인원: 4명 \*선착순

참가비: 회당 5,000원

### 한 달 한 권 독서모임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다. 혼자서는 읽기 어려운 독서를 방앗간 책모임을 통해 함께하자!

진행정보: 10월 격주 금요일 오후 2시

접수방법: 인스타그램 신청링크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갑법천국 2층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cheongchon\_



## 삼례 청년문화공간 '완충지대'

### 글쓰기 모임

마음 속 생각을 글로 꺼내고 서로의 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이다. 혼자서는 이어가기 힘든 글쓰기를 글쓰기 모임을 통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완충지대 계정 D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진행정보: 월 1회 진행

### 일본어 회화 모임

일본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며 즐겁게 배우는 시간이다. 나카무라 미코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본어 회화 모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서둘러 참여하자!

진행정보: 10월 21일, 28일 (화) 오후 6시 30분

### 그림 그리기, 회화 모임

자신만의 그림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10월 21일, 28일 (화) 오후 1시

### 영화 읽기 모임

한 편의 영화를 함께 보고, 다양한 시선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장면과 의미를 영화읽기모임을 통해 함께 발견하자! 참여 문의는 완충지대 계정 DM을 통해 하면 된다.

진행정보: 월 2회 진행

주소: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82 (신아빌딩 4층)

문의: 070-4113-777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wanchungjidae

참가신청: 인스타그램 메시지

##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 + "가을이 물들어가는 10월. 시골극장 공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공씨네 10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10월 18일 (토) 오후 2시	패딩턴:페루에 가다	드라마	전체 관람가
10월 25일 (토) 오후 2시	3,000년의 기다림	판타지	12세 관람가

#### \* 영화를 깊이 있게 <저녁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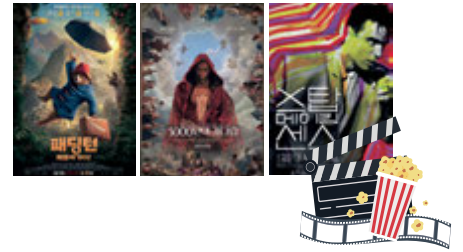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10월 28일 (화) 오후 7시	스탑 메이킹 센스	다큐멘터리	12세 관람가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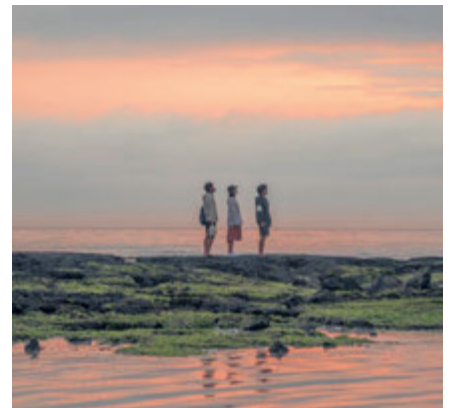


## 마을라디오 기초 교육



완주미디어센터에서 마을라디오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10월 22일, 23일, 27일, 28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콘텐츠 제작 기초, 녹음 장비 사용법, 썸네일 제작, 보이는 라디오 촬영 장비 세팅 등 라디오 제작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완주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 미러리스 카메라 입문-찰나의 운기



완주미디어센터가 일상의 순간을 사진으로 담는 '미러리스 카메라 입문-찰나의 운기'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장면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 기간 동안 참가자는 센터에서 미러리스 카메라를 대여해 실습에 참여하며, 개인별 작품 사진 인화 지원도 제공받는다. 한편,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소년 등 감면대상자는 전화 070-4218-431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식사 나눔 및 후원인의 밤

완주 마을살림기금위원회가 오는 10월 25일 (토) 오후 6시, 고산미소시장 광장에서 '식사 나눔 및 후원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후원인이 함께 어울리며 따뜻한 식사와 교류의 시간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010-8338-4952로 문의하면 된다.

## 질문이 있는 이달의 책

키아라 메잘라마 글 | 레자 달반드 그림 | 이세진 옮김 | 다그림책(키다리)

### 색깔을 찾는 중입니다



가끔 책방에 들어왔다가 “잘 모르겠다”며 돌아서는 손님이 있다. 특정 주제의 책이 있는지 물었다가 몇 권 찾아드리면 관심을 보이는 듯 유심히 살핀다. 좀 신이 나서 다른 책을 더 권할라치면 웬걸 벌써 돌아서 있다. 몸을 오므리고 문을 빠져나가며 남기는 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문을 나갈 때와 확연히 다른 속도로 사라진다. 권하려던 책을 들고 어정쩡하게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멍하니 문만 바라본다. ‘모른다는 것을 몰랐나? 모른다니 권했는데 취향이 아니었나? 찾던 책이 아니라는 말을 돌려 표현한 건가? 아니지, 모르니까 물어봤겠지. 그나마 모른다는 사실을 안 게 어디인가.’ 숨 한 번 내쉬고 책을 정리한다. 그에게는 아마도 책을 물었다가 비로소 모른다는 것을 알게 해 준 체험일 것이며, 나에게 묻는 대로 책을 권했다가는 고객이 내뱉 수 있다는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나를 다스리는 노하우를 하나 더 쌓는 체험이 되기도 한다.

책 제목이 [색깔을 찾는 중입니다]인데 ‘찾는 중’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주인공의 경험은 아마도 아이들, 혹은 모든 사람들이 타인과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전혀 특별한 것이 없는 상황일 수 있다. 세상은 대부분 둘 중 어디냐며 다그치고, 둘 중 명확히 할라치면 정답이 아니라고 뉘달한다.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둘로 명확히 나뉘는 세상 이치는 거의 없다. 아마도 ‘찾는 중’이라는 표현은 ‘조금씩, 점점 알아지는’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았을까. 안다, 모른다, 좋다, 싫다 등 생각의 기초가 없다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그에 반응하는 자신을 체험하는 상태를 ‘찾는 중’이라고 말한 듯하다. 돌이켜보면 별스러운 것도 없는 고객과의 상황에서도 어떤 것을 찾게 되니 말이다.

‘찾는 중’. 멋진 말이다. 주인공은 조금씩 찾아간다. 어찌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늘 일어나지만 어떻게 넘을지는 각자의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찾는 중’이라는 생각으로 찬찬히 보며 상황을 넘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계기로 자신이 전과는 어딘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과 희열이 있을 것이다. 나만 느끼는 것일지라도 상관없다. 말해봤자 상대방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간혹 덤처럼 어딘가 달라 보이는 나를 알아주는 밝은 눈이 나타나기도 한다. 주인공처럼 말이다.

감나무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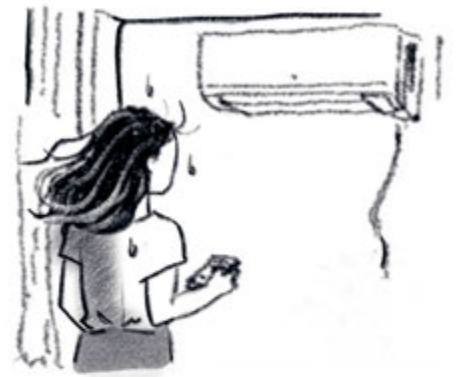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남봉로 134 ☎ 063-262-3111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 매일설레

#76 기후위기

10월의 낮 최고기온 갱신  
31.7도 ... ..



최저기온 18도 ... ..



관리비로 찾아온  
기후위기 ... ..



설레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촌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 291-8448



표지 사진=바오출판사 제공

### 고산사는 이영희 작가 '부채장수 김서방전' 출간

“부채가 그리 맛있어서야 사람들 눈길을 끌 수 있겠는가?”

낮선 선비가 지나가며 한마디 툭 던졌어. “허허 모르는 말씀 마시오. 이 부채로 말하자면, 전라감영 옆에 사는 장인이 흑석 골 한지로 날밤을 새워가며 만든 부채란 말이요.”



김 서방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선비의 말에 발끈해서 큰소리를 탕탕 쳤지.

과연 김 서방은 부채를 다 팔 수 있을까?

고산 출신 이영희 작가(사진)의 첫 번째 그림책 『부채장수 김서방전』이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2025 전주도서관 출판 제작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 출판산업을 일군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부채장수 김서방전』은 전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부채장수와 선비의 이야기를 통해 옛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생각, 그리고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미덕을 전한다.

작가는 의성어와 의태어, 전주 고유의 문화적 풍경을 그림책 곳곳에 구성지게 배치하여 우리말 재미와 세시풍속을 세심하게 짚어냈다. 독자는 김서방과 함께 전라감영, 풍남문, 한백당, 전주천 등 고풍스러운 전주의 모습을 따라가며, 단오 무렵의 세시풍속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남밖장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창암 이삼만 명필의 일화를 통해 부채의 가치와 예술적 감각, 그리고 선비의 이타적 마음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이영희 작가는 만개의 이랑을 고루 적시는 만경강이 시작되는 곳, 원주 고산에서 나고 자랐다. 2023년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 예술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동시집 『택배 왔습니다』를 펴낸 바 있다. 현재 전북동시문학회, 전북아동문학회, 전주문인협회, 한국동시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핀란드 템페레 세종학당 학생 대상 언어교환 봉사활동을 하며 한글과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윤대라 #artistDERA #올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멍멍이 견재,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원주살이 12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_dera/](https://www.instagram.com/artist_dera/)



## 참으로 멋진 한 영화인을 추모하며

###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22) 스트라이샌드의 [추억]



스캔하시면 음악이 재생됩니다.

기억들이여, 내 마음 구석구석을 밝혀다오  
물빛 안개처럼 아스라한 그때 우리들에 대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Barbra Streisand)가 부른 [추억]("The Way We Were")은 단순한 영화 주제곡이 아닙니다. 사랑과 추억,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불멸의 명곡입니다. 1973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와 함께 발표된 이 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를 대표하는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춘시절 자주 듣던 이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하던 영화인 레드포드(Robert Redford)의 부음 소식을 듣고 추모의 마음을 담아 소환합니다. 영화 [스팅], [내일의 향해 쏴라], [아웃 오브 아프리카] 등을 통해 깊은 감동을 전해준 영원한 영화인, 배우이자 감독이며 '선댄스 영화제'를 탄생시키는 등 세계 영화사에 굵직한 획을 긋고 떠난, 참으로 멋진 배우를 추모하며 반복해 듣고 있습니다.

노래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로 시작해,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조심스레 펼치듯 서서히 감정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고조되며, 끝내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와 그리움을 애절하게 토해냅니다.

가사 속 화자는 한때 사랑했지만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이를 떠올리며, 그 시절의 기억을 '그때의 우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 시

간이 아닙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젊음과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던 한 시대의 공기까지를 끌어안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 곡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와의 연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드니 폴락 감독이 연출한 영화 [추억]은 케이티(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허블(로버트 레드포드)의 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케이티는 이상주의적이고 열정적인 사회운동가입니다. 반면 허블은 매력적이지만 세상사에는 크게 개입하지 않는, 그야말로 '황금소년' 같은 존재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만났으나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강렬한 끌림은 끝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고,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의 배경은 단순한 멜로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공산주의자 색출이라는 광풍에 휩싸인 매카시즘 시대가 다가오면서, 케이티의 정치적 신념은 허블의 안전한 삶과 충돌하게 됩니다. 사랑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케이티와 허블은 뉴욕

거리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칩니다.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케이티는 허블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서로 현재의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허블은 미소 짓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다 이루지 못한 꿈과 사랑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때 이 노래가 흐르며 관객의 마음을 끝내 허물어뜨립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두 사람의 이별을 넘어서, 사랑과 신념, 개인의 행복과 시대의 요구 사이의 비극적인 간극을 보여줍니다.

로버트 레드포드는 영화에서 허블 역을 맡으며, 1970년대 미국 남성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잘생긴 외모, 따뜻한 미소, 그리고 은근한 쓸쓸함을 간직한 연기는 그 자체로 영화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개인적 선택과 시대적 압력의 충돌을 체현합니다. 허블은 정치적 신념을 위해 싸우는 케이티를 사랑하지만, 결국 자신은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가 보여주는 갈등은 단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비춘 거울이었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세상을 떠난 후, 많은 이들이 이 영화를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을 한 세대가 잃어버린 이상과 젊음을 추모하는 노래로 기릴 것입니다. 아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허블의 황금빛 미소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잡는 케이티처럼. 사랑은 끝날 수 있지만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케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완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마을 소식

## 완주어린이취타대, '세종 한글 축제'서 초청 공연

완주어린이취타대가 지난 10월 11일, 대한민국의 상징인 한글을 기념하는 '세종 한글 축제'에 초청되어 화려한 퍼레이드와 공연을 선보였다.

한글날 공식 지정 8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한 축제 현장에서, 어린 단원들은 세종시 마스코트 '충녕이'와 함께 퍼레이드를 펼치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매화공연장에서 진행된 본 공연은 정교한 전통 복식과 절도 있는 움직임,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취타대 선율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24년 창단하여 올해 2기를 맞은 완주어린이취타대는 도내의 주요 행사 및 문화 축제에 꾸준히 초청되며 한국 전통문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완주향토예술평화회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완주어린이취타대는 전북 권역을 넘어 전국에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어린이취타대는 미래의 전통문화 계승자로서 그 역할과 기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모든 것은 하나로 합쳐져, 흐르는 강물이 된다

### 김영혜의 영화산책

#### (9) 흐르는 강물처럼 A River Runs Through It

로버트 레드포드(Robert Redford)가 지난 9월 세상을 떠났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백인 미남배우였던 그는 <스팅>, <내일을 향해 쏴라>, <아웃 오브 아프리카>, <위대한 개츠비> 등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많은 영화에 출연했다. 그런데 그는 연기뿐만 아니라 영화 감독으로서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첫 연출 작품이었던 <보통 사람들>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하였다. 이후로도 그는 좋은 영화들을 꽤 여럿 만들었고 몇몇 작품들은 흥행에도 성공하였다.

1992년에 연출한 <흐르는 강물처럼>은 그가 만든 영화 중 비교적 덜 알려진 작품이고 흥행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 사람살이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력과 더불어 놀랄 만큼 아름다운 촬영으로 말미암아 은근히 너른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이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아픈 손가락'이 있게 마련이다. 미국 몬타나주의 한 소읍에서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맥클레인 씨네 집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었다. 둘째 아들 폴(브래드 피트 분)이 바로 그 '아픈 손가락'이다.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두 형제는 매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 브래드 피트/크레이그 세퍼 주연, 미국, 1992

우 친밀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청년으로 성장한다. 형 노먼(크레이그 세퍼 분)은 모범적이고 책임감 있는 맏이로서 동부의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교수 자리까지 얻게 된다. 둘째 아들 폴은 활달하고 강인한 청년으로 고향 몬타나의 지역신문 기자로 성장한다. 폴은 뛰어난 입담과 사교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부모로부터도 돈독한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악덕이 있었는데 그건 도박이었다. 도박으로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폴은 틈만 나면 위험스러운 비밀 도박장으로 향한다. 그는 전형적인 모범생인 형의 삶의 방향을 은근히 경멸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멈추지 않아 형과 부모의 애를 태운다. 그리고 결국 비극적 죽음을 맞아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가슴 아픈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울고 난 뒤의 개운함 같은 청량한 여운을 남기는 것은 무엇보다 몬타나의 놀랄만큼 아름다운 자연 풍광 때문이다. 아버지 맥클레인 목사는 플라이 피싱(fly fishing, 동물의 털로 수생곤충 모양의 미끼를 만들어 물고기를 잡는 낚시기법)을 종교만큼이나 숭배하는 전문 낚시꾼으로 두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플라이 피싱을 가르친다. 몬타나의 청정 자연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낚시 수업을 받으며 성장한 두 아들 중 특히 폴은 예술적 경지에까지 도달하여 아버지를 감격하게 만든다. 폴이 도시로 함께 가자는 형의 제안을 단호히 물리치고 몬타나에 남기를 선택한 데에는 맑고 힘차게 흐르는 강에 발을 담그고 멀리 낚시줄을 던지는 그만의 예술행위를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 크다.

이 영화는 실존인물인 노먼 맥클레인의 자서전을 영화화 한 것이다. 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아내까지 모두 떠나보낸 노년의 노먼이 고향으로 돌아와 어둡한 강에서 혼자 플라이 피싱을 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난다. 그는 이렇게 읊조린다. "어둡해진 계곡에 홀로 있으면 모든 존재가 희미해져 나의 영혼과 기억 속에 하나로 뭉쳐진다. 그리고 그 사이로 강물이 흐른다."

김영혜는 부산에서 태어나 여기저기 떠돌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전주에 이십 년 넘게 정착해 살았다. 얼마 전 은퇴해서 완주에 작은 땅을 일구며 살고 있다.

### 우리 결혼해요

## 나란히 귀촌해 결혼까지... 동갑내기 정세현·이수민 예비부부

오는 10월 18일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고산면 완주미래행복센터 운동장에서 결혼식이 열린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동갑내기 예비부부 정세현, 이수민 씨는 2018년 완주에 정착한 이후 함께 쌓아온 시간을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예정이다.

각각 부산광역시, 전남 장흥이 고향인 두 사람은 충남 홍성 소재 농업대학에서 만나, 2년간 함께 농사 짓고 기숙사 생활을 하며 친한 친구로 지냈다. 수민 씨는 "워낙 잘 맞고 좋아하는 친구라 관계가 변하는 게 두려워서 오히려 고백을 거절했었다"며 "그런데 졸업 전 마지막 겨울, 작업복만 입던 세현이 까만 룡패딩을 입고 나온 모습을 보고 설렘을 느꼈다. 그때부터 마음이 커진 것 같다"고 회상했다

졸업 후 '완주에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행력 좋은 세현 씨가 다니던 농기계 회사의 완주지점으로 이직하며 먼저 자리 잡았고, 수민 씨도 뒤따라 완주로 왔다. 현재 두 사람은 반려견 타로와 함께 고산면에서 생활하며 만경강 산책길과 고산자연휴양림을 거닐며 일상의 추억을 쌓고 있다. 수민 씨는 "퇴근 후 매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던 완주 곳곳의 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큰 변함없이 살아가고 싶다"며 "완주에서 주거와 일자리 안정을 통해 심리적·경제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다.



반려견 타로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동갑내기 정세현·이수민 예비부부

## 극한의 더위가 꺾이는 순간에 가을이

농/촌/별/곡



차 남 호

하루가 멀다 하고 가을비가 내린다. 아련하고도 낭만이 깃든 <가을비 우산 속>의 그 비가 아니다. 농사꾼 처지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바로 가을비다.

왜 아니 그렇겠나. 결실의 계절이고 거둬들여야 할 것 천지인데 이리 주야장천 비가 내리면 어찌란 말인가. 내가 짓는 벼농사만 해도 그렇다. 논바닥이 보슬보슬 말라 있어야 수확기계(콤바인)가 별 어려움 없이 작동하는데 물이 고이고 진창이 되면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는 비를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늘만 바라볼밖에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게다가 올해는 깨씨무늬병이 크게 번졌다. 벼잎과 줄기에 깨씨 모양의 갈색 반점이 생기고 끝내는

이삭이 고스리져 쪽정이가 되는 곰팡이병이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고온다습해지니 병충해가 극성을 피우기에 딱 알맞은 환경이 되는 것이다. 온통 불그죽죽한 논배미부터 들성들성 번진 곳까지 피해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만큼 소출이 줄어드는 걸 피할 수 없다.

그나마 10년 넘게 나락을 건조하고 방아를 찧어주던 정미소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옆친 데 덮친 꼴 아닌가. 그동안 안정적으로 쌀을 얻어왔는데 수확을 코앞에 두고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대체할 곳을 찾는 일이 급하게 되었는데 조건을 갖춘 시설을 찾기가 그리 여의치가 않아 걱정이다.

이래저래 속이 타고 심란한 가을이다. 그래도 어쨌거나 가을걷이 준비는 해야 하니 낫을 놓고 널부러져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추수 전에 해치워야 할 마지막으로 해줘야 하는 게 독치기다. 수확기계엔 키 큰 풀이나 넝쿨이 엉키는 걸 막고 작업자의 시야를 확보하려 함이다. 한여름에 예초기를 돌려 둔 덕분에 풀이 우거지지는 않았다. 작업이 순조로워 여드레 걸리던 일이 채 이틀도 안 돼 끝났다. 기운이 남아돌아 내친김에 뒷산 산책길을 정리했다. 극심한 기후변화 탓에 숲 또한 나무와 덩굴로 뻘뻘이 우거지니 낮으로는 모자라 예초기까지 들이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쨌거나 오솔길을 가지런히 다듬어 놓았으니 하루 한 시간 남짓 맑은 기운 속에서 사색에 빠져들 수 있겠지. 수풀을 정리하며 산자락을 둘러보니 밤나무에서 쏟아진 알밤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예전 같으면 보이는 족족 주어 담았을 텐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손이 가지 않는다. 이래저래 마음이 심드렁한 탓일까. 가을이 뭐 이래?

따지고 보면 이 가을이 그리 심드렁한 것만은 아니었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서울로 올라가는 대신 고산에서 진행됐다. 만장과 풍물패를 앞세우고 읍내를 한 바퀴 돌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어 완주미디어센터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노 임팩트 맨>을 함께 감상한 뒤 여러 주제를 놓고 '기후위기 솔직담담회'가 이어졌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저마다 자신의 절박한 각오를 털어놓았다. 저녁식사 뒤에는 'DJ공연' 형식의 오픈마이크 행사가 이어져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추석연휴 끝 무렵에는 폭염 탓에 한동안 접어두었던 등반을 다녀왔다. 영암 월출산, 그곳에 초가을이 있었다, 앞으로도 '별밤극장'이며 '햅쌀밥찬치' 같은 가을을 핑계로 한 잔치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심란한 마음도 시나브로 풀어지고 "역시 가을은 가을이야!" 할 날이 올 수 있을까. 자못 궁금해진다. 비봉 염암마을

### 완주군의회 소식

## 대통령실에 군민 뜻 담은 서한문 전달

### 완주군의회·완주전주통합반대 군민대책위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지나나 10월 14일 완주전주통합반대 군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완주군민과 군의회의 뜻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완주군의회와 주민대표단은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주민의 삶과 자치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날 전달된 서한문에는 "주민의 뜻이 곧 지방자치의 근본"이라는 문구와 함께, 최근 여론조사에서 군민 71%가 통합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명시됐다. 완주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5항을 근거로 "행

정안전부 장관은 통합 권고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주민투표 권고'가 아닌 '의회의결 권고'로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주민갈등 조기종식을 명분으로 한 주민투표 강행은 2013년 이후 겪었던 지역 분열과 갈등을 재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의식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온전히 발전하기 위해 대통령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150여 명의 완주군민이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곳은 날씨 속에서도 통합 추진 반대 의사를 굳건히 드러냈다.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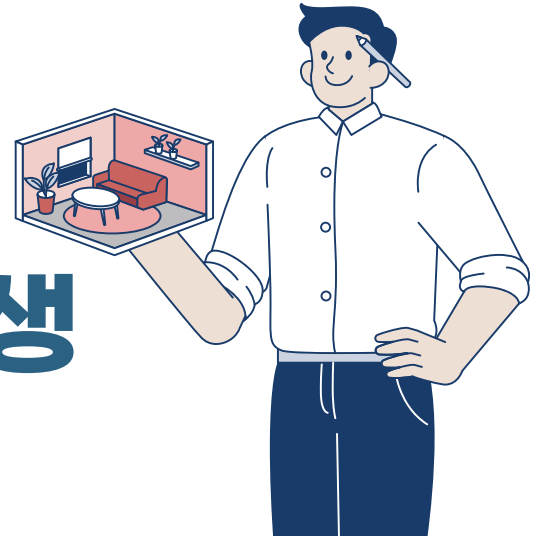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338-33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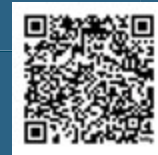
2025 완주군 역량강화사업

# 수리수리 '집수리' 부캐학교

## 교육생 모집



- 모 집 기 간 2025.10.15(수) ~ 10.29(수)
- 모 집 대 상 내 집과 이웃의 집을 고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고 싶은 완주군민
- 모 집 인 원 최대 20명
- 신 청 조 건 자부담(8만원/선납) / 단체복 등 교육실비
- 신 청 방 법 QR코드 촬영 또는 신청링크 접속 후 신청서 제출  
<https://bit.ly/2025집수리부캐학교신청>



- 교 육 일 시 11.7(금) ~ 12.6(토) (11월21일, 22일 제외)  
※ 총 8강 (매주 금, 토) / 매회 09시~18시
- 교 육 장 소 완주미래행복센터 일원(고산면 고산천로 854-7)
- 교 육 내 용 집수리에 필요한 주제로 구성  
(초급용접, 각관용접, 건축목공, 창호시공, 외부마감, 단열시공, 전기공사, 내부마감 등)
- 수료 후 활동 완주군 내 집수리 서비스 활동 참여 연계 예정
- 문 의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역량강화사업팀 (063-905-5050)

### 무엇을 배우나요?

- 집수리부캐학교에서는 내 집과 이웃의 집을 고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응용 가능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일상 속의 기술적인 자립을 목표로 합니다.



### 이런 교육생을 찾습니다.

- 기본적인 공구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분, 간단한 자가·이웃집 수리 경험이 있는 분 환영합니다.
-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 환영합니다.
- 본업(본캐)이 있더라도 일과 중에 교육 참여에 필요한 시간을 낼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 80% 이상 출석하여 교육과정 수료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